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딱 기다려! 1부 리그"

지난 29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플레이오프 안산 경찰청과 광주 FC의 경기에서 후반 팀의 첫 골을 넣은 광주 파비오(오른쪽)가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에고

광주, 경남과 3일·6일 K리그 승격 놓고 최후의 대결

1·2차전 승리수, 득실차, 원정 다득점 順 승자팀 결정

거침없는 광주 FC의 2014시즌에 운명을 건 두 차례의 승부가 남았다. 클래식 리그를 놓고 벌이는 광주 FC와 경남 FC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3일과 6일 겨울 그라운드를 축구열기로 수놓는다.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리그 4위팀인 광주에게 앞선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 두 경기는 살얼음 승부였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 정규리그 상위권 팀이 승리팀이 되는 대회 규정상 광주에게는 '승리'라는 경우의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승부였다.

벼랑 끝에 선 광주 선수들은 강원을 넘어, 올 시즌 1무3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안산까지 3-0으로 대파하면서 기적처럼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상대는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성남에 덜미를 잡히며 11위로 시즌을 마감한 경남이 됐다.

남은 두 경기 숨가쁜 일정이다. 안산과의 혈투 4일 만인 오는 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치러진다. 그리고 3일 뒤인 6일 오후 2시에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린다.

승리팀 결정 방식은 ▲1·2차전 승리수 ▲1·2차전 합산 득실차 ▲원정다득점 ▲연장전 ▲승부차기 순으로 이뤄진다.

2차전까지의 결과 승점이 높은 팀이 승자가 되고, 승점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 득실차를 계산한다. 득실차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을 따져야 한다. 원정다득점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승부에 들어간다. 전후반 15분씩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지고도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는다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다.

광주는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 없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 승점으로 승리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사기는 넘친다.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광주는 조직력이 틀을 갖춰가면서 광주 스타일의 축구를 만들며 뒷심을 발휘했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간신히 4위를 확정짓기는 했지만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에서 거침없는 승부로 강원과 안산을 따돌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됐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우리는 올라가려는 입장이고 분위기도 올라와 있다. 반대로 경남은 내려오는 분위기로 우리도 그 아픔을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크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며 "시즌초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단단함으로 뭉쳐있다. 어려움을 극복했기에 이 자리에 와있다. 우리 준비만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결과도 가져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광주 정원주 대표이사(중흥건설 사장)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얼마 전 1부 리그 진출 시 사재 5000만원을 특별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정 대표는 앞서 두 차례의 한우 파티에 이어 1일에도 선수단과 임직원에게 한우를 대접하며 격려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대상 시상식

라이언 킹, K리그 '킹'

MVP 이동국…광주출신 이승기·광주FC 김호남 1·2부리그 베스트 11

'라이언킹' 이동국(전북 현대)이 올시즌 프로축구 K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개인 통산 3번째 MVP 트로피를 품으면서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출신의 이승기와 광주 FC의 '승부사' 김호남은 각각 클래식과 챌린지 리그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국이 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클래식(1부 리그) MVP로 선정됐다. 전북 '닥공'(닥치고 공격)의 핵심인 이동국은 기자단 투표에서 112표 가운데 101표를 싹쓸이 하면서 올 시즌 K리그를 대표하는 별이 됐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MVP가 된 이동국은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작성했다. MVP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이동국은 축구팬이 직접 뽑은 '아디다스 올인 팬타스틱 플레이어(FAN-tastic Player)'로도 선정되며 실력과 인기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이동국은 시즌 막판 종아리 부상 속에서도 13득점을 기록하고, 6개의 도움을 올리는 등 득점·공격포인트 2위를 달성했다. 지난 9월에는 1년 2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 나서 '센추리 클럽'에도 가입하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이동국은 역전골과 쐐기포를 연달아 터트리며 맹활약했다.

전북의 우승을 지휘한 최강희 감독은 99표를 획득하며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됐다.

생애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영플레이어'상의 영광은 포항 김승대에게 돌아갔다. 포항은 2012시즌 이명주, 2013시즌 고무열에 이어 3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하며 탄탄한 유스 시스템의 위력을 과시했다.

광주 FC 초대 멤버로 활약했던 광주출신의 이승기(전북)도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팀의 승강플레이오프를 이끈 광주 FC의 김호남도 챌린지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MVP 이동국

챌린지 리그 최우수선수의 영예는 총 105표 중 90표를 얻은 대전의 공격수 아드리아노에게 돌아갔다. 아드리아노는 이번 시즌 챌린지 한 시즌 개인 최다골(27) 기록을 세우며 득점왕이 됐다. 우승을 견인한 대전 조진호 감독은 최우수 감독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K리그 클래식, 12개팀 38경기

스필릿 시스템 유지…챌린지, 팀당 40경기

2015시즌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스플릿시스템이 적용된다. 2부리그인 K리그 챌린지는 신생팀 서울 이랜드 FC의 합류로 팀당 40경기를 치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이 2015시즌 운영 방침 등을 정했다.

내년 시즌 K리그 클래식에는 12개 팀이 참가해 팀당 38경기씩 총 228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과 동일하게 3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33라운드 경기를 치른 뒤, 1~6위 상위 스플릿(그룹 A)과 7~12위의 하위 스플릿(그룹 B)로 나뉘어 5경기를 더 치르는 스플릿 시스템이 운영된다.

K리그 챌린지는 각 팀이 두 차례의 홈 앤드 어웨이로 총 4번 만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신생팀 서울 이랜드 FC가 챌린지 리그에 뛰어들면서 11개팀이 팀당 40경기(총222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은 36라운드까지 진행됐다. 홀수팀 운영으로 매라운드 1팀씩 휴식기를 갖게 된다.

승강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시즌 챌린지 1위 팀은 자동 승격되고 클래식 최하위인 12위 팀은 자동 강등된다. 클래식 11위 팀과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는 승강플레이오프를 거쳐 강등팀을 결정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소년 클럽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선수가 다른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원소속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지명선수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미지명 유소년 선수의 진학 및 진로 모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11월에 실시됐던 우선지명권 행사 시기는 9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 시즌에도 국군체육부대는 상주상무로 K리그 무대에서 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